

바이오, 관심 높지만 대우는 열악

바이오기업 구인 66%가 비정규직 ... 43%는 4대 보험도 적용안돼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병원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는 바이오인력의 43%가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등 취업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재단 생물학연구정보센터(<http://bric.postech.ac.kr>)가 2004년 자체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인데이터 5041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인데이터의 66%가 비정규직 채용으로 분석됐다.

특히, 65%(전체 구인데이터의 43%)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조차 적용하지 않는 일자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인데이터(5041건)를 등록기관은 대학(35%), 기업(17%), 바이오벤처(13%), 대학병원(13%), 국가기관(9%), 출연연구소(8%), 기타(5%) 순이었다.

구인기관별 4대 보험 미적용 현황에서는 병원(93%)과 대학(78%)의 미적용률이 높은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28%)과 국가기관(20%)은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기업에서 바이오인력 채용 때 조건으로 내건 평균임금은 학사급 1555만원, 석사급 1793만원, 박사급 2805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는 학사급 645만원, 석사급 679만원, 박사급 1152만원 등으로 박사급의 연봉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인기관별 임금은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바이오벤처의 임금이 국가기관이나 대학병원, 대학 등에서 주는 임금보다 높았다.

구인정보에 제시된 임금을 2003년과 비교할 때는 전체적으로 4.9% 가량 임금수준이 높아졌는데 학력별 임금 상승률은 학사급 8.8%, 석사급 5.1%, 박사급 2.8%로 집계됐다.

전공별 구인인력은 분자생물학(22%), 세포생물학(14%), 생화학(9.9%), 생명공학 (6.5%) 순으로 많았으며 구인기관의 소재지는 서울(54%)과 경기도(17%)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한편, 2004년 생물학정보센터에 등록된 구직건수는 모두 606건으로 학력분포는 학사 33%, 석사 58%, 박사 9% 등으로 분석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취업사이트는 2004년 하루 평균 3000명이 방문하고 20건의 구인정보가 등록되는 등 국내 바이오분야 대표사이트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19>